

서운영의 '집과 사람'



다세대 주택, 그 이름은 빌라

요즘 전세가의 상승비율이 매우 높다. 우리의 주택시장은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하여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 후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수순이었다. 전세에 산다는 것은 내집 마련의 전 단계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집값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얼마 동안 전세로 살면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이른바 대기수요가 증가하였고, 그것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의 값은 내려도 그저 조금만 내릴 뿐 여전히 비싸기만 해서 전세 거주자가 인근의 빌라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빌라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비해 무언가 미흡하고 그래서 집값이 조금 저렴한 것이 현실이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흔히 빌라 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1990년대 대도시와 신도시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주거유형이다.

한편, 이촌향도의 시기였던 1960~70년대 농촌을 떠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에는 셋방살이가 크게 유행했다. 양육집이나 개량 한옥에

서 한두 개 방을 빌려 사용하는 형식이였다. 그런데 본래 한 채의 집이던 곳을 셋방식구들과 함께 살자니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몹시 불편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처음부터 세를 줄 생각으로 2층 집을 지으면서 아예 주방과 화장실을 층별로 따로 주고 계단 역시 외부에서 출입이 쉽도록 만든 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세를 더 받을 요량으로 지하의 보일러실을 개조하여 반지하 셋방을 만들고 또한 옥상을 개조하여 옥탑방을 들이기도 했다. 사실상 4층 집을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본래 1층에 전세 거주자가 살고 2층에 주인이 살던 집이었는데 1층을 반으로 쪼개면 전세를 한 집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혹은 3층 집을 지어 주인은 3층에 살면서 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씩 세를 주는 집도 생겨났다.

그리하여 1980년대 도시의 골목길마다 반지하와 옥탑방이 있는 3층 집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지하와 옥상에 사람이 사는 방을 들이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러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모호했고 무엇보다 살 집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1990년대 초반 이를 양성화한 것이 다

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다. 현재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임대만 가능한 뿐 개별 등기와 개별 매매가 불가능한 반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와 매매가 가능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둘은 명확한 구분없이 그저 '빌라'로 통칭되고 또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비해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양분되며 공동주택은 또한 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세분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며,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이다. 이렇게 된 데는 해방 후 꾸준히 진행된 정부의 주택정책이 한 몫을 한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땅값이 비교적 저렴해서 대도시에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점차 도시의 땅값이 비싸지면서 전원주택이 그 대안으로 유행했다. 이제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겨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직접 짓는 것은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가 주도한 것은 주로 아파트였다. 과거에는 주택공사(현 도시주택공사)의 전신을 통하여 중공아파트를 지어

분양했고 대형 건설사 역시 00건설이라는 회사명이 그대로 붙은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 즉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이요, 아파트는 중산층주택이라는 이분법이 성립하면서 그 아래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를 파고든 것이 개인사업자들이 지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명 빌라였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급히 짓던 주택이다 보니 터러 날림공사도 있었고, 주치를 비롯한 여타 생활환경도 열악한 편이었다.

무엇보다 1990년대 부족한 주택수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양성과 방안을 마련하면서 주차와 일조권을 비롯한 일부 규정을 더욱 완화해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열악한 주거환경을 유발했고 빌라란 곧 서민주거라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빌라라는 주거유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고급빌라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은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다가구 주택들이다. 어느 것이나 처음부터 나쁜 주거유형은 없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제도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건축칼럼니스트)

종교칼럼



원 광 나주 원각사 주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

화란 아무런 노력 없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 역시 주변으로부터 ‘불교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럼 저는 유 교수의 말에 빗대어 이렇게 답합니다. “불교는 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종교이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일 때에야 비로소 그 종교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느낄 수 있고, 그 느낌 만큼 종교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특이나 자신을 관조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 세상을 통찰하는 종교인만큼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중요한 종교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불교 입문서라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참선하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무엇에 대해 저리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인가 느껴보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올바른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서 팔정도(八正道)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정도는 바르게 보

고(정견·正見), 바르게 생각하고(정사유·正思惟), 바르게 말하고(정어·正語), 바르게 행동하고(정업·正業), 바른 수단으로 목숨을 유지하고(정명·正命), 바르게 노력하고(정정진·正精進), 바른 신념을 가지며(정념·正念), 바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정정·正定) 수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르게 보는 정견(正見)을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치가 우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의문은 누구나 가져본 적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선 무엇이 핵심이고, 실제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바르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르게 보아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일만 대중들이 알고 있는 법구(法句)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아마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는 ‘모든 것은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화엄경(華嚴經)’의 중심 사상으로,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일체의 이 세계가 마음의 세계이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내 마음에서 지어낸 세계라는 뜻입니다. 일체의 세계가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면 그 재료가 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올바른 진리에 가까운 재료라면 자신이 만들어 내는 세상도 진리에 더 가까울 것이고, 그릇된 생각으로 가득한 재료라면 아마 왜곡된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요?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료가 필요하듯이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바르게 보기 위한 노력이 먼저일 것입니다. “불교는 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알게 됩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는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에 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실행함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바른 안목을 갖추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나가길 기원하며,

기고



김 현 창 조선대학교 법학과 3학년

언론과 종교 사이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에펠탑의 실제 모습은 경이로웠다. 324M 높이의 웅장한 고철덩어리(?)에 매료된 사람들은 사방팔방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동시에 눈길을 끄는 것은, 무장한 경찰과 군인들이었다. 세계 최대의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 부근에서도, 베르사유 궁전과 몽마르트 언덕에서도 군인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파리 시내 중심지의 모든 곳에서 군인과 경찰이 테러 예방과 테러범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 덕분인지 평소에는 먹이를 찾는 하이어나처럼 관광객들에게 물러들어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물었다. 또한 ‘Je suis Charlie’(내가 샤를리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 시위를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테러 행위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군경의 배치나 시위가 있었다고 한 들 여행자인 우리에게 는 실질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장한 군인이 몇 명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의 파리의 풍경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테러사건은 샤를리 엡도라는 프랑스 신문사의 지속적인 무슬림 풍자 만평에 격분한 무장 괴한들이 샤를리 엡도 사무

실을 습격, 12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살인으로 억압한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하여 프랑스 시민들은 물론이고 유럽의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내가 샤를리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인륜적인 테러를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운동이 펼쳐졌다. 외국인, 여행객으로서의 우리는 사실 테러의 위협만 조심하고 계획한 대로 탐방을 마치면 그것으로 그만이지만, 프랑스 현지 시민과 자유의 가치를 무엇보다 높게 여기는 여러 자유주의 국가 국민들은 깊은 충격과 애도에 빠지고 분노를 느낀 것이다.

‘내가 샤를리다’운동은 삼시간에 퍼져 나갔다. 희생자들에게 대한 추모, 애도와 더불어서 언론의 자유를 아만적으로 제한하려하는 무슬림 무장단체의 행위에 강력한 비난이 쏟아짐은 물론이었다. 시민들은 대테러 경보단계 최상급을 유지하는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피켓을 들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외쳤고 일부 언론사들은 샤를리 엡도의 ‘문제가 되었던 만평’을 신는 방법으로 억압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같은 추모와 저항운동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고, 모두가 샤를리 엡도하고 무슬림을 비난하는 분위기로 이어지

는 듯 보였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했다. 파리의 어느 고등학교생은 “나는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내가 샤를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학교의 이슬람 친구들은 이를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언론이라고 종교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리를 비롯한 이슬람국가들에서는 ‘나는 샤를리다 아니다’ 운동이 펼쳐진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의 11%가 이슬람권 이민자 출신이다. 그만큼 프랑스 내부에 이슬람교도의 숫자는 적지 않다. 과연 그들에게 ‘내가 샤를리다’는 구호는 어떤 의미일까. 자신들의 신을 모독하는 신문에 대한 그들의 입장, 또 그것을 무력으로 응징한 무장단체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종교를 비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동시에, 자신의 종교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 또한 교리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결국 서로의 상식선의 배경과 종교, 가치관의 차이로 비롯된 일기 때문에 제2의 샤를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자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해본다.

社說

‘노후 아파트도시 광주’ 사고 예방이 최선

광주 아파트 웅벽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는 아파트 거주인구 4명 중 1명꼴인 25%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어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언제든지 대형사고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체 972개 아파트 단지에 38만460세대의 시민이 입주해 아파트 거주비율이 62.7%로 전국 최고라고 한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9만여 세대, 1980년대 전후에 지어져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1만4735세대가 살고 있다.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시멘트 건물은 20년을 지나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특히 80년대 전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기술력이 부족한데다 안전보다는 빠른 완공에 치중, 부실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 수익만 챙기려는 건설사가 신자락 등 아파트 부지로 부적합한 곳

에 출속으로 지은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자료나 진단을 통해 광주지역 곳곳에서 대형사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1년에 지어진 북구 평화맨션도 지난 해 7월 균열이 발생했다. 국민안전처의 2014년 지역 안전진단에서도 광주 동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구의 안전도가 최악인 ‘마들금’을 받았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앞으로 제2, 제3의 사고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구청 등 관계기관이 사고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노후아파트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우선이다. 1년 전 웅벽 안전진단을 하고 이상없음 판정을 내렸는데도 붕괴된 대화아파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안전등급도 재조정에 위험시설을 보강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문 대표, 호남 달래기 아닌 진정성 보여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8일 당 대표 경선에서 박지원 후보가 턱 밑까지 추격한 데는 호남 민심의 결집이 있었고 호남이 친노의 수장인 문 대표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11일 당직 인선에서 광주의 강기정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전남의 김영록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당내의 호남 소외론을 의식한 인선인 셈이다. 또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예방은 이희호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교동계가 호남의 상징이자 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지원 후보의 선 거캠프를 직접 방문하는 등 공개 지지 여나 나섰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 끌어안기라는 해석이다. 문 대표는 14일 당선

이후 가장 먼저 광주·전남을 방문,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하고 통합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표는 지난 9일 박영의 차이로 석패한 박지원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으며 조만간 박 의원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선 결과 박 의원이 호남과 비노의 대표 인물로 자리매김하면서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문 대표가 호남 달래기나 민심 끌기의 외형적 효과만 노린다면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하다. 호남 민심은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함께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지지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당의 화근인 계파를 청산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급선무다. 산적한 경제·민생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곁에 다가가기야 한다. 이는 호남에서 민심의 지평을 넓히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만이 가능할 것이다.

無等鼓

“너무 아름답다.” 객석 옆 통로에서서 무대 위 밴드 공연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말했다. 공연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리던 이였다. 콘서트를 보고 “감동적이다. 멋있다”고 말하는 건 자주 접하지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 들었다. 콘서트가 열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은 정식 공연장이 아니다. 조명과 음향은 열악하고, 무대 장치도 거의 없었다. 연주를 한 이들도 프로 음악인이 아니었다.

공연팀은 ‘해와 달 밴드’. 윌리엄스 중후군을 앓고 있는 김하람(19·드럼),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은아(20·키보드)양, 김민국(20·퍼커션)군이 멤버다. 여기에 아이들과 4년간 연습해온 기타리스트 전영규·주하주씨가 함께했다. ‘나는 나비’ 등을 연주하며 아이들은 행복해했고, 그 기운은 객석으로 전해졌다.

“아이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사는 게 소원”이고 “아이를 통해 삶의 향기를 느끼게 돼 감사하다”고 말하는 엄마. “220mm짜리 아동을화를 신는 하람이가 세상에 음악으로 작은 발을 내딛으려 한다”며 격려해 달라는 이야기가 영상으로 흘러나올 땐 눈물 짓는 이들이 많았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빛이고 에너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엄마의 말처럼 이날 공연은 아이들이 응원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었다. 공연을 보며 지난 2013년 같은 공간에서 만났던 연주자가 떠올랐다. 버클리 음대 유학을 앞두고 있던 시각장애인 재즈피아니스트 강성수씨다. 그는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분명 보였던 길어 저녁, 집으로 돌아올 때는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날 때부터 녹내장을 앓아서 ‘완전 실명’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변화였다. 여덟살 때 일이다.

이후 피아노는 그의 모든 것이 됐다.

연주하며 행복해 하던 모습과 함께 가장 보고 싶은 걸 물었을 때 ‘부모님 얼굴’이라 답하던 게 떠오른다. 그 기억들을 붙잡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며 웃던 모습도 생각난다. 지금쯤 버클리 음대에서 좋아하는 뮤지션 허비 행콕과 조우했을지도 모르겠다. ‘해와 달 밴드’ 아이들도 음악을 징검다리 삼아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아주 작은 돌 하나씩 놓아주며 응원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